

# 북한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 Development of North Korea Tour Product

이경숙  
김포대학 관광경영학과

Kyeong-Sook Yi(yi2004@kimpo.ac.kr)

### 요약

북한관광이 이루어진 지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가장 민감하게 고통을 당하는 분야가 관광이다. 북한관광을 민간차원의 교류로 하고자 했던 기본을 염두해 두었다면, 더욱 발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개성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의 30%가 금강산관광 경험자인 자료를 근거로, 계획되어 있는 백두산관광 이후 이어지는 북한의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 남한의 경제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개발되지 않은 북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간다면 남북한 양쪽 모두에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하여 새로운 북한 관광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음 한다.

■ 중심어 : | 북한관광상품 | 금강산 · 개성 백두산관광 | 공간연계 | 북한관광채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ment of North Korea tour product. From 10 years ago, Kumgangsan tour started with peace unikorea. But onl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uncertain on political issue also always tour is influenced. Kumgangsan, Gaesung and baekdusan tour is going to renew. So North Korea tour product is continuos of space connection of adjoining land under Kumgangsan, Gaesung and baekdusan tour product.

■ keyword : | North Korea Tour Product | Kumgangsan, Gaesung and Baekdusan Tour | Space Connection of Adjoining Land | North Korea Tour Channel |

## I. 서론

중단과 반복을 거듭해온 북한관광은 본 논문을 쓰는 현 시점, 금강산관광이 중단 된지 1년이 되어간다. 1999년 처음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이래 2003년 육상을 통한 관광, 2008년 3월 승용차를 가지고 금강산을 갈 수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 오면서 작게나마 남북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상위의 정책들에 의해 제일먼저 관심을 가지고 표면화 되

는 것은 언제나 관광이 중심에 있었다. 앞으로 남북협력의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다. 단지 시간이 흘러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다. 현재 중단이 되어 있다 해도 우리 정부나 기업은 기존의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그리고 예정대로였다면, 이미 백두산 관광도 시작되었어야 한다. 그 이후에 현재 북한이 관광 상품화해 놓고 남한의 국민들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관광 상품들 중에서 우리정부의 대표사업자라 할

\* 본 연구는 2009년 김포대학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90814-002

접수일자 : 2009년 08월 14일

심사완료일 : 2009년 10월 14일

교신저자 : 이경숙, e-mail : yi2004@kimpo.ac.kr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민간기업인 현대아산이 다음 관광지로 지정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하며,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가보고 싶어 하는 목적지에 대한 기관의 조사를 근거로 북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갈 방향을 찾으려 한다.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개성관광 방문자들 중 금강산을 1회 이상 다녀 관광객 이었다는 자료를 근거로 계속해서 북한의 관광 상품은 개발되어야 한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 관광이라는 남북관광교류 라는 용어 대신 북한관광이라는 단어를 쓸 것이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관광은 일반적으로 우리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 이지, 북한 국민이 남한에 관광을 위해 오지 않으므로 북한관광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북한관광에 대한 연구는 4가지특성을 지니는데, 첫째 관광학이 지니는 학제간의 연구가 북한관광연구에도 적용되며, 둘째 남북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불가측성이 강하며, 셋째 역사적 연구나 철학적 연구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의 연구가 보다 높은 유효성을 지니며, 넷째 분석적이기보다는 문제해결 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정책과학적 요소가 강하다.

미국 국가 정보위원회 (NIC)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트렌드 2025 에서는 2025년까지 한국이 통일 될 것으로 보고 있다[1].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단일국가로 까지 통일이 안 되면 최소한 일종의 남북연합형태로까지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순진하게 결정론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어려운 과정과 고비가 통일 한국으로 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 보더라도 당장 향후 북한관광의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관광부문에서는 그간의 남북 관광 협력 사업을 백지부터 재평가하는 작업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과연 남북관광협력이 본질적으로 남북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는지,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유지에 제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해 볼 문제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 상호간의 사회, 문화적 간격은 조금이라도 가까워졌는지, 참여기업들의 이익은 기대만큼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의 관광욕구 확대 수용과 외래

관광객 유치의 경쟁력 기반 마련에는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북한관광이 시작되어 10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관광에 있어서만큼은 평화적으로 상시 개방될 수 있으려면 더 많은 북한지역의 관광지가 개발되어야 한다[2].

## II. 이론적 배경

### 1. 북한관광의 발전과정

#### 1) 내국인의 북한관광

남한의 북한관광 방문객은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08년 11월28일 2008년 7월11일 금강산에서의 관광객피격사망사건 이후 개성관광 중단까지를 [표 1]금강산관광연혁 과 [표 2]개성관광연혁으로 구분하여 년도 별로 재정리 했다.

#### (1)금강산관광

표 1. 금강산 관광 연혁

일 시	주요 내용
1998년 11.18	금강산 관광선 “금강호” 첫 출항
1999년 6.21	민영미씨 억류사건(6.26 새벽 속초 도착),관광일시중단
1999년 8.5	관광재개(7.30 관광세칙 및 신변안전관련 합의서 체결)
2000년 8.22	(주)현대아산과 공사 협정서 체결
2001년 1월	패속관광선 “설봉호” 속초 출항
2001년 6월	현대아산과 공사 금강산관광사업 참여 합의서 체결
2002년 9월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동시 착공식
2002년 11.25	북, 「금강산관광지구법」 발표로 관광특구 지정
2003년 2.14	금강산 육로관광 시작
2003년 10월	공사 금강산사업소 개소 및 주재원 파견
2004년 1월	금강산 해로관광 중단(설봉호 반납)
2004년 1.29	남북, 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 체결
2005년 6.7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돌파
2006년 5.27	남북공동 내금강 답사
2007년 5월	경의선, 동해선 철도 시험운행 공사 금강산 면세점 정식 개점(영업시작일 : 2006.4.7)
2007년 6월	내금강 본 관광 시작, 금강산 관광객 150만명 돌파
2007년 12월	이산가족연회사무소 개소식, 경의선 개통
2008년 3.17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2008년 5.28	금강산 골프장 정식 개장
2008년 7.11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정부, 금강산관광 잠정중단
2008년 8.3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 “금강산 관광지구 체류하는 불필요한 남측인원 모두 추방” 발표
2008년 8.14	북측 명승지개발지도국, 현대아산측에 금강산 체류 인력을 200명까지 축소하라고 통보 (현재 남측인원 41명 체류)

<출처> 한국관광공사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 및 필자 추가 작성 (3)

(2)개성관광

표 2. 개성관광 연혁

일 시	주요 내용
2000년 8.22	개성 육로관광 추진 합의
2003년 3.18	개성관광 협력사업자 승인
2005년 7.16	현대아산-北 국방위원장, 백두산 및 개성관광 합의 개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005년 8.25	개성시범관광 협력사업 승인
2005년 8~9월	현대아산 주도 개성시범관광 3회 실시 (1,635명 참가)
2007년 11.3	현대아산 - 北 아태, 개성관광 연내 실시 합의
2007년 12.4	개성관광 협력사업 승인
2007년 12.5	개성관광 개시
2008년 11.12	北,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과 제한" 통보
2008년 11.24	北, 개성관광 중단 통보
2008년 11.28	개성관광 전면중단

〈출처〉 한국관광공사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 및 필자 추가 작성

(3)외국인의 북한관광

해외시장에 대한 북한관광 상품의 유통경로는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이 산하조직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합작·합영 여행사의 설립을 통한 판매 및 해외 여행사에 의뢰하는 형식이 취해지고 있다. 북한은 또한 합병법 제정 이후 외래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과 공동출자 또는 공동경영으로 합작·합영 기업 형태의 여행을 해외에 설치하여 북한관광을 알선하고 있으나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4].

합작·합영 기업으로는 마카오 화재그룹과 조선국제여행사간의 조·오 국제 여유공사, 중국 요령성 단동국제여행사와 평안북도간의 조·중 여유공사, 재미동포 단독출자의 합영회사인 금강산 국제관광회사가 있다. 세계 각국에 북한이 관광상품 판매를 의뢰한 여행사는 약 2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판매하고 있는 여행사는 일본, 홍콩, 호주, 태국, 대만,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 친북여행사 중심의 30 여개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승객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지역의 북한관광상품 판매실태를 간략히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북한 관광 상품 판매실태

상 품 명	여 행 사	기 간	가 격	코 스
Decouvrez la Coree du Nord	CGTT Voyages (프랑스)	8박9일	2,519 euros	평양, 개성, 묘향산 등
De Gesloten Wereld van Kim	VNC Travle (프랑스)	13일	2,495 euros	평양, 남포, 개성, 묘향산
Ontdek Noord-Korea	VNC Travle (프랑스)	7일	1,047 euros	평양, 개성, 묘향산
North Korea	Universal Travel System (Santa Monica, USA)	-	USD3,460 + USD1,700 (항공료)	북경, 평양, 판문점, 만경대
North Korea & the Mass Games	Geographic Expeditions (San Francisco, USA)	-	USD5,625 + 항공료	북경, 평양, 백두산, 칠보산, 개성, DMZ
12Days North Korea	Universal Travel Corporation (싱가포르)	12일 (여름)	S\$1,519 ~ S\$2,088	평양, 개성, 판문점, 금강산, 원산 (중국 경유)
-	Discover Asia (호주)	-	맞춤 상품	맞춤 상품
North Korea	Judy International (호주)	2박3일	A\$964	남한 경유 금강산 2박3일
North Korea	Regent Holidays (영국)	7박8일	£1,245 ~ £1,860	평양, 개성, 판문점, 원산, 금강산 (중국 경유)
North Korea, The Unknown Land	Bales Worldwide (영국)	11박12일	£1,995 ~ £3,730	북경, 평양, 남포, 개성, 묘향산 (2007년부터 취급)
북한-압록강-대련 8일	華順여행사 (대만)	7박8일 (북한4일)	NTD42,800	평양, 묘향산, 개성 등 (중국 경유)
Tou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ventures Abroad (캐나다)	12박13일 (북한8일)	-	평양, 묘향산, 개성, 판문점, DMZ, 원산, 금강산 (중국 연계)
Diamond Mountain Tour	Royal ScenicHolidays (캐나다)	-	맞춤	맞춤

〈출처〉 한국관광공사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

북한의 여행사가 제안하고 있는 관광일정은 감상, 인식, 교육, 휴식, 휴양, 하이킹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기본적인 관광일정은 1박2일에서 14박15일 까지, 전문 관광은 형식에 따라 40일까지 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일정은 3박4일~7박8일로 제시하고 있다. 전문 관광에는 하이킹, 탐험관광 / 무용표기법연수관광 /

태권도관광 / 골프관광 / 감탕치료관광 / 조선어연수관광 / 교육자관광 / 동의치료관광 / 혼례관광 / 백두산도보관광 / 동식물조사·사찰관광 / 수렵관광 / 백두산천지생물조사관광 / 백두산화산지대지질연구관광 등이 있다. 북한으로의 주요 입국경로는 북경-단동-신의주-평양, 모스크바-하산-두만강-평양간의 여객철도 노선과 평양 인근의 순안공항을 창구로 한 단일 항공입국 경로가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더구나 미수교국과의 정기편 운항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적성국가로부터의 관광객과 언론인 등의 입국이 제한되고 있어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유치활동마저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관광상품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평양이 유일한 출입국 장소로 고정되어 있다는 접근상의 제한과, 평양을 시·종착점으로 제한적 관광코스과 구성내용 등으로, 정기편을 이용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모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종 북한 관광상품의 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관광매력의 충실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외국인여행자의 단체관광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부터였다. 이러한 관광여행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지없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러나 의외로 1997년부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관광객 입국이 중단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대단한 변화이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북한의 주요 인바운드 시장인 중국으로부터는 연간 7-8만명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일일 400여명의 방문객이 쇄도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5] 일본인의 경우 순수관광객은 1996년 이전에는 1,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연간 2000명까지 유치규모를 확대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의 단순한 외래 관광객을 위한 기본 일정의 틀 안에서나마 기존코스의 변형, 조합 등을 통한 보다 다양한 상품의 기획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 2. 북한관광 상품 종류

### 1) 북한관광 상품

#### (1) 일반상품

평양-묘향산(3박4일), 평양-개성(3박4일), 평양-묘향산-개성(4박5일), 평양-남포-개성(4박5일), 평양-원산-금강산(4박5일), 평양-백두산(4박5일), 평양-개성-금강산(5박6일),

#### (2) 특수목적상품

김일성花 김정일花 강습관광(3박4일), 학습관광(4박5일), 花園관광(6박7일), 고구려왕릉관광(5박6일), 과수원관광(5박6일), 산악관광(5박6일), 고려인삼관광(4박5일),

탐조관광(5박6일), 골프관광(4박5일), 고고학관광(6박7일), 예술관광(4박5일)

김일성花는 인도네시아 식물학자에 의해, 김정일花는 일본 꽃꽂이 전문가인 라모 모도테루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평양에서는 매년 김정일花 전시회가 개최된다

#### (3) 기타관광

치료관광, 태권도 연수, 자모식 무용 표기 연수, 조선말 교육연수[6]

한편 1998년 북한은 총 41개의 여행상품을 구성하여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주요 여행지는 평양, 묘향산, 개성, 금강산, 판문점 등이고 기간은 6박7일(8개), 7박8일(8개) 4박5일(7개)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가격을 살펴보면 평양 4박5일 상품이 225000엔이었으며, 대부분의 상품이 이 가격 이상으로 남한이 상품보다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7].

## 3. 내국인의 북한관광 상품 이용한계

북한당국에 의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관광의 중단조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남북간의 화해협력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도발적 조치들이다. 불법적인 행위와 일방적인 교류협력의 중단 조치들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남과북은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한다는 남북간 화해협력의 포괄적 정신을 훼손하였다[8].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는 규정도 일반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6.15 공동 선언에서 합의한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하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개최한다는 약속도 위반한 것이며 10.4 정상선언에 포함된 각종 남북산 교류협력의 확대 방안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다[9].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은 1998년 금강산 관광의 실시와 더불어 남북간에 체결했던 금강산 관광계약서 상의 신변안전, 역류금지, 무사귀환의 보장 약속을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99년 6월 금강산지역에서 우리측 관광객인 민영미씨를 불법 억류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체결되었던 신변안전보장합의서 에도 위반되는 행위였다. 당시 남측 사업자인 (주) 현대와 북측의 아태위원회는 관광객의 관광중단, 추방, 형사사건등 중대사건에 대해 금강산 관광사업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는 내용의 신변보장 합의서와 기타 관광 준수사항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금강산 관광 준수사항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는데 이해 비추어 관광객 피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없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북측의 부당한 조치들은 6.15공동선언 이후 체결된 일련의 주요 남북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특히 2004년 체결되고 2005년 8월1일자로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2항 북측은 범질서 위반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가능 하다는 조항과 제12조 2항 출입 및 체류문제 협의 해결을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10].

금강산 관광 중단을 포함하여 12월1일부터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으로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주무 업체인 현대아산은 경영상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 금강산 관광중단 등 대북사업이 파행을 빚고 이어 개성관광중단과 개성공단 운영이 차질을 빚게 됨으로써 현대아산으로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북한관광 상품은 당국의 일방적 가격 결정으로 상품 가격이 높아 국제 경쟁력 저하되어 있고, 관광객의 자

유가 보장되지 않고, “보는 관광”에 치중되어있으며, 관광객의 입출입이 평양으로 제한되어있다.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은 금강산이나 개성등 남측에서 개발하는 곳이 아니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북한 내부사정으로 관광 일정이 불시에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나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입국을 위한 비자수속 및 발급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며, 장시간 소요된다는 것도 북한관광의 발전제해 요인이다. 그러나 미개발에 의한 오염되지 않는 자연환경, 질서정연함, 지극한 서비스는 내세울만한 장점이다.

### III. 북한관광객 실태조사

#### 1. 금강산관광객

1998년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북한관광이 시작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민간이 주체가 되고 정부지원에 의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통일 분위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향후 민족적 기대와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수의 관광객을 북한관광에 유인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많은 관광객이 북한 관광에 참여하여 활발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져야만 남북교류증진 및 상호이해라는 관광의 협력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이 관광에서 매력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만족의 관점에서 평가되므로 관광객의 만족을 파악하는 것은 특정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북한 관광도 이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북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관광 참여 경험자들의 새로운 목적지 희망사항에 근거하여 현재의 금강산, 개성 그리고 실행되었어야할 백두산 이외의 관광목적지 개발을 위한 제안을 하려한다.

한국관광공사의 2008년 금강산 관광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보고서 에서는 금강산 재 방문객 중 재방문 사유가 골프를 치려고(15.6%), 가보지 못한 곳이 있어서(3.1%), 새로 개발된 관광코스가 있어서(3.1%)등 새

로운 관광인프라 개발이 금강산 재방문율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북한관광의 발전은 새로운 북한내의 관광지 개발에 민관이 참여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내야한다[11].

표 4. 금강산관광대가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금액	-	20,600	13,600	3,720	2,150	1,310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금액	1,530	1,350	1,230	2,038	1,141	48,669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 2. 개성관광객

개성 관광사업은 금강산 관광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3년 1월18일 현대아산과 북측의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는 경의선 철도 도로를 통한 개성 육로관광의 실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현대아산이 개성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신청에 대하여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곧바로 승인해 주었다. 그리하여 2005년 8월부터 현대아산(주)과 한국관광공사가 본격적으로 개성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개성관광은 버스를 타고 경의선 도로를 통해 개성을 관광한 뒤 저녁에 남한으로 돌아오는 당일 관광의 방식이다[12]. 관광 코스는 관음사, 선죽교, 송양서원, 박연폭포, 고려박물관 등이다. 개성시범관광에 대해 2005년 8월초에 북한측과 잠정적으로 합의를 마치고 2005년 8월에 총3차례가 실시되었으나, 본 관광은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5일에야 시작되었다.

표 5. 개성관광객현황총괄

구분	2007년	2008년											합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내국인	7,364	8,966	8,413	11,182	11,232	11,581	11,863	11,257	7,124	5,206	6,942	6,005	107,135
외국인	63	83	127	218	304	372	305	350	323	564	406	299	3,414
소계	7,427	9,049	8,540	11,400	11,536	11,953	12,168	11,607	7,447	5,770	7,348	6,304	110,549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하지만 개성관광은 2008년 11월 28일 마지막으로 시작한지 1년도 안되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두고 남북관계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사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남북관계가 요동을 쳤다. 마침내 북측은 11월24일 남측의 6.15.10.4선언 불이행과 대북강경책을 문제로 삼아 육로통행의 엄격제한과 차단, 개성관광중단, 개성공단 내 상근자 감축 등을 담은 12.1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11월 28일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개성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 210명이 마지막 관광길에 다녀왔고, 마지막 운행을 하게 된 경의선 열차도 화물 없이 문산-동봉역을 왕복 운행하였다. 이로써 2007년 12월 5일 처음 실시된 이후 총 11만 1770명이 다녀온 개성관광이 중단된 것이다.

## 3. 금강산·개성 관광객 실태조사결과

2008년 금강산 관광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보고서에 서는 총19개 항목별 만족도를 측정할 바 있다. 이중 금강산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인 2007년을 기준으로 보면 70범 이하를 나타낸 항목은 방북신청방법 및 결과(69.5), 통관절차(61.6), 관광비용(62.2), 남측식당의 음식가격(83.7), 북측식당 음식의 질(69.5), 북측식당의 음식가격(62.8)등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항목으로는 담당조장의 친절성(87.8), 숙박시설 직원의 친절성(84.1), 숙박시설 객실(82), 온천 및 온천 시설(80.7), 곡예단 공연 및 시설(87)등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출입상의 절차와 가격 등이 문제가 되는 반면 인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난감한 것은 출입절차와 가격 등이 상대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항목이라는 점과 오히려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이미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금강산 재방문객 중 재방문 사유가 골프를 치려고 (15.6%), 가보지 못한 곳이 있어서 (3.1%), 새로 개발된 관광코스가 있어서(3.1%)등 새로운 관광인프라 개발이 금강산 재방문 비율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개성관광의 경우는 2008년 말 한국관광공사에

서 개성관광 1년여를 결산하는 2008년 개성관광 운영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동 조사에서도 전체항목의 만족도 평가 결과는 금강산과 마찬가지로 관광신청 및 절차(57.3)이나 관광비용(50.4) 등이 공통적으로 낮았으며, 관광코스 중 화장실, 벤치, 매점 등 편의시설 만족도 역시 4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쇼핑부문에서도 상품의 다양성(45.9), 상품의 질(45.7), 상품의 가격(47.5) 등도 매우 저조하게 조사되었다[13].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금강산과 비슷한 결과로써 인적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금강산과 다른 점은 쇼핑부문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록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마케팅 실행 측면에서는 개선의 영역과 목표를 잡아 내기에 오히려 용이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금강산, 개성 관광 등의 중단과 중단 이전의 관광불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관광재계는 기정사실이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정치적인 상위 정책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물론 앞으로는 정치적인 이유와는 별개로 관광은 언제나 행해졌으면 한다.

금강산 관광으로 시작된 남북관광교류 사업은 크게 발전하였다. 우선 금강산 관광사업은 해로관광에서 2003년 9월부터는 본격적인 육로 관광이 이루어졌고 2008년 3월 중순 부터는 승용차 관광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관광코스도 초기의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등에서 해금강과 동석동-세존봉-구룡연의 순환 코스 등이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야영장과 해수욕장 등도 개발되었고 내금강 관광도 이루어졌다. 이로써 지난해에는 연간 35만 명의 남북관광시대를 열었다.

개성관광 사업도 2005년 8-9월에 3차례의 시범관광을 거친 후 2007년 12월부터 본 관광이 성사되어 월 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발전하였다.

백두산 관광은 2005년 7월에 이어 2007년 11월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9년 5월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14]. 그러나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과 대북지원 물자의 전용 의혹, 항공관제탑 등의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2003년 육로 관광이 개통되며 본격화되기 시작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까지 20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올 만큼 성황이었지만 현재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악재들이 발생하며 결국 전면 중단되었다.

표 6. 남북한 인적 교류 현황

		단위	1998	2000	2005	2007	08. 1~8
비관광 방북		명	3,317	7,280	87,028	158,170	126,614
관광 방북	금강산 관광	명	10,554	213,009	298,247	345,006	199,966
	개성관광	명	-	-	1,484	7,427	83,694
총계		명	13,871	220,289	386,759	510,603	410,274

주 : 2008. 1~8월의 방북자 중, 금강산관광은 7월 11일까지임 (출처) 2008년 금강산 관광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보고서, 한국관광공사.

## V. 결론 및 북한관광 상품 개발방향

북한관광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첫째 관광학이 지니는 학제간의 연구가 북한 관광연구에도 적용되며, 둘째 북한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예: 남북정치 상황, 주변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불가측성이 강하며, 셋째 역사적 연구나 철학적 연구가 아닌 대부분의 경우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의 연구가 보다 높은 유효성을 지니며, 넷째 분석적이기보다는 문제해결 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과학적 요소가 강하다. 북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북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북한관광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관광 사업은 앞선 몇 차례의 사건 사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관광의 자율성이 미흡하다. 금강산 관광을 처음 하던 때와 비교하면 관광코스과 관광지구가 크게 확대되고 관광의 자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관광 지구라는 통제되고 제한된 지역 속에서 북측 출입사무소의 통과 시간과 북한 내에서의 개별 승용차 관광, 관광지구내에서의 이동과 여행의 활동성,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 및 체험관광과

같은 다양한 상품 개발 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제약이 존재한다. 관광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처상태의 남북 간 특수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며, 공급자 위주의 관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등산 관광, 개성관광은 유적지 관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객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관광지역과 자율성 확대, 인근지역과의 연계상품 개발 허용등과 함께 보다 다양한 숙박 위락 시설 확충을 통해 소득 계층별 연령별로 차별화된 상품 개발허용이 요구된다. 현재 북한에서 판매하고 있는 관광 상품의 내용 중에서 금강산, 개성, 백두산 이후에 개발되어야 할 지역은 이들 세 지역을 각각 거점으로 하여 인근 지역을 개발하여 당일관광이 아닌 숙박을 겸한 체재형이 가능한 관광 상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여러 방면에서 점진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향후 여러 루트를 통해 북한관광의 이동시간이 단축된다면, 북한의 다양한 지역에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 수 또한 증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은 그에 맞는 비용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여행비용에 있어서는 무조건 가격을 낮추기 보다는 가격별 차별화된 관광 상품 제공이 제공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물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의 해소이다. 북한관광 활성화 위해서는 정부의 법 제도적 개선 노력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장애가 존재한다면, 무수한 북한관광 활성화 방안은 공허할 수 밖에 없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북한관광에 대한 자유는 언제든지 보장한다는 상호간의 합의를 해두는 것이 작금의 사태를 재발하지 않으면서 관광만큼은 행해진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어야만 꾸준한 북한관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산하기관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북한 관광 개발에 네트워크, 자원, 교육, 마케팅 등의 노하우를 지렛대로 추가적인 채널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공적 역할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한국관광의 중장기적 발전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미래 비전도 함께 열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민간

기업 들의 참여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등도 병행해야만이 북한관광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다시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향후 남북관광재개의 시점에서는 보다 전향된 정책 전략을 검토하여 관광을 통한 남북한 정세 안정과 통일 초석의 기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관광공사는 금강산 관광에 참여한 후 그 입장이 매우 어려워졌던 적이 많았고 북한관광에 있어서 사업자, 전체기획자, 총괄지원자, 협의 창구 등의 역할을 오가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광 협력은 특성상 앞으로도 전면적인 정부의 참여가 쉽지 않고, 민간의 역량 등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참고 문헌

- [1] 미국국가정보위원회, "글로벌트렌드 2025", 한울, p.155, 2009.
- [2] 신학성, 통일후 북한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해평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3] 한국관광공사, 『북한관광동향』 2009.
- [4] 한국관광공사, "2007년 남북관광교류협력에 대한 총평과 백두산 관광사업 추진현황과 과제", 북한관광동향, 2007.
- [5] 이지혜 "신년기획 활짝열린 북한관광 다채롭게 유람한다", 여행신문 2008년 1월9일.
- [6] <http://www.unikorea.go.kr>
- [7] 남성욱, "개성관광, 평양관광 진초기지 의미있다", 데일리NK2005년9월12일.
- [8] 통일부, 「2008 남북관계 어떻게 추진되었나?」 2008.12.18.
- [9] 양문수, "남북교류협력의 관점에서 본 대북관광사업," 『정세와정책』 (세종연구소), 2005년11월호 p p . 9 - 1 0 = n k 0 1 2 0 0 & n u m = 1 1 5 2 7 <http://sejong.org/Pub-ci/PUB-CI-DATA/k-2005-1-03>.
- [10] 이봉희, 강원도 DMZ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강



원발전연구원, 2006.

- [11] 현대아산, 개성관광 : 고려 오백년 도읍지 서울 :현대아산, p.4, 2007.
- [12] <http://www.kopea-DMZ.COM/>
- [13] 한국관광공사, 2008년 금강산 관광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보고서, 2009.
- [14] 한국교통연구원, “백두산 관광실태의 의미와 정치 경제적 효과”, 2007(12).

저 자 소 개

이 경 숙(Kyeong-Sook Yi)

정회원



- 1987년 2월 : 청주대학교 관광영  
영학과(경영학 학사)
- 1990년 2월 : 경희대학교 경영대  
학원 관광경영학과(경영학 석사)
- 1997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  
원 관광경영학과(관광경영학 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김포대학 관광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관광상품개발(여행상품), 관광외국어교육